

# 초선 공부모임 구성 신선 실적위주 시정질문 '눈살'

## ▣대구시의회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통해 7월 출범한 대구시의회(장경훈 의장 외 28명)는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고,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역량을 다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 위주의 잦은 시정질문은 개선할 점으로 꼽혔다.

21명이 초선의원인 제5대 대구시의회는 초선의원 9명이 '수초회(수요초선공부모임)'를 구성, 매월 2회 수요일 아침에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하거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한 특강을 실시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간 9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 제·개정 59건(의원 발의 9건), 예산·결산 9건, 동의·승인 14건, 건의·결의 3건, 기타 39건 등 12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지역 주요 현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지원특위는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 시민 대상 경기 참관 서명운동, 해외 홍보 등에 적극 나섰으며,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특위도 구성돼 조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6회에 걸쳐 31명의 의원이 67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냈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논의 및 질의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을 본회의로 가져 가 '보여주기식' 또는 실적에 연연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긴 시간을 배경자료 설명에 할애하는 연설식 시정질문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신 일문일답식으로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 문제점을 따지고 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5억8천여만원을 들여 21명 의원의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일은 예산 낭비라는 일부의 지적을 받았다. 유일한 3선 의원이었던 강황 전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점도 5대 의회의 오점으로 기록됐다.

장경훈 대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곤기자 kons@yeongnam.com